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 받은 화목의 대사들”



신년 축복성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은혜한인교회 벤엔겐 목사 초청 신년 축복성회 개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지난 1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벤 엔겐 목사(풀러신학교 세계 선교대학원 석사신학교 교수) 초청 온 가족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회기간 벤 엔겐(Charles Van Engend) 목사는 ‘능력 받아 땅 끝까지’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화목의 대사(고린도후서 5:11~2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여러가지 종교들과 여러 민

족의 도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화목의 대사들이 되라고 강조했다”며 벤 엔겐 목사는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세상은 용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셔서 화목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고린도는 60만의 인구가 사는 무역의 도시였고 특히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아시아인, 북아

프리카인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지역과 비슷하죠. 이러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화목의 대사들이 되라고 바울은 편지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깊은 미움을 갖고 있던 한 친구와 화해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벤 엔겐 목사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친구를 지나치게 미워해 몇 년 간의 헛된 시간을 보냈었다”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선생

의 인도로 친구와 화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실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 나갑시다.” 벤 엔겐 목사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멕시코(Chiapas, Mexico)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일하며, 멕시코 남부의 장로교회 목회자를 위한 상담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호프 대학(Hope College)과 풀러(Fuller)에서 수학하고, 암스텔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Amsterdam)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했다.

은혜한인교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축복성회는 7일(금)까지 열일 예정이며,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는 은혜이음 새벽부흥회를 ‘오직 예수, 한 방향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기홍 목사는 “새해 교회 표어를 ‘오직 예수, 한 방향 인생이 되자’라고 정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변화받을 수 있으므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교협 신년하례회 및 임원 이취임예배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김원락 목사)는 오는 11일(화) 오전10시 30분, 벨

리제일장로교회에서 신년하례회 및 임원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오는 13일(목) 오후6시, 삼성장로교회(신원규 목사)에서 제20대 회장, 이사장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갖는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종기 목사)는 오는 16일(주일) 오후6시 총현선교교회에서 신임 임원 이취임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미국인 새해 결심 90% 나! 나! 나!

미국인들의 2011년 새해 결심은 대다수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11년 새해를 맞아 ‘미국인들의 새해결심에 관한 보고서(American’s Experiences with Resolutions)’를 발표한 바나그룹리서치

회장은 전체 응답자의 9%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답을 전한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쌓으려는 노력 보다,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새해 결심의 주가 되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1,022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에 응답자 중에는 총 61%가 새해결심을 세웠다고 답했다. 이 중 지난해 새해결심을 세운 결과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 지난 해 세운 결심이 장기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사람은 25% 미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이는 29%, 아

키나맨 회장 “희생과 섬김으로 장기적 변화 가져오길”

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책임감과 봉사활동을 늘리기 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새해 결심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미국인들의 새해 결심 중에는 ‘체중 조절, 다이어트, 건강’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5%가 돈, 물질과 관련한 결심, 13%가 개인적인 발전과 관련한 것, 12%가 중독과 관련한 결심이였다.

반면 영적 생활과 교회 관련 새해결심은 전체 응답의 5%에 그쳤다.

바나그룹 데이빗 키나맨

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전체의 49%나 됐다. 키나맨 회장은 “더 큰 문제는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변화가 섬김과 타인을 위한 희생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보다 개인적인 변화에 새해결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은 개인주의를 넘어 목적을 성취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복돋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유니온교회



지난해 8월 유니온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 교회를 개척한 이정근 목사가 은퇴하고 문병용 목사가 새롭게 취임했다. 문병용 목사는 개척하여 30여 년을 묵회한 이정근 목사의 빈자리를 매우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한창이었다. 미국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가 개척, 부흥하는 교회를 묵회하던 그가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된 배경과, 5개월의 소감,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유니온교회에서 묵회한 5개월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제가 유니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알았던 분들이 60~70

여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부지런히 심방을 다니는 중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바쁜지 경험한바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던 기도목회 보다는 큐티묵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바로 시작한 특별 새벽기도회에 8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역시 '기도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시작되니 새벽기도나 금요철야를 통해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수년이 되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체험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간

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도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던 성도들이 또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니 감사합니다. 매우 저력 있는 교회 이죠.

-유니온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줄 예상하셨나요?

“아니예요. 1991년도에 유학 와서 공부를 마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1년, 유니온교회 부목사로 3년을 지내다 9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올거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97년도에는 한국에 IMF가 온 상태여서 한국에 돌아가 개척하는 것을 말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니 순종했지요. 그때 유니온교회에서 2만불을 헌금해 주셨었습니다.

분당에 서복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니 6개월 만에 100여명이 모였고 8년 만에 20여억 원에 달하는 교회 건물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묵회를 하던 중 작년 9월에 청빙 연락이 왔어요. 미국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일단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가도 되겠구나 했는데... 불현 듯 9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빙이 올 때였는데, 갈 것 아니면 청빙이 없게 하시고 다시 청빙이 들어오면 가야 할 곳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청빙이 없었는데 9년 만에 유니온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부터 미국을 오기위한 과정이 시작된 거죠.”

-당시 서복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니온교회 담임 문병용 목사

문병용 담임목사 취임 5개월... 목회 청사진 그려

충격적인 일이였겠네요.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청원서와 비자가 5월까지 통과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했더니 성도들은 난리가 났죠. 기도 안하던 성도들까지 나와서 가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장로님들이 제비뽑기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에 가는 것이 한 표 더 나오게 됐지요. 그런데 청원서와 비자가 안오면 성도들은 다시 안심했는데 글썽 6월에 통과 됐다는 서류를 받았습니. 그 서류에는 5월 말로 통과 됐다는 확인날짜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는 문제는 마무리했지만 후임자를 찾는 일이 시급했어요. 기도하다가 서복교회와 5분 거리에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해 성공적인 묵회를 하고 있는 이웃교회 목사가 생 각났습니다. 그만큼 책임자가 없다는 생각에 기도하고 찾아가 제

안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기도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구요. 그리 하여 두 교회가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유니온교회에 8월달에 취임하고 한달후 9월에 그 교회는 새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되었고, 이정근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과정중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혼란한 마무리 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 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같 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응답하신 그대로만 간다면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다. 비록 당장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 모릅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앞으로 유니온교회에는 어떤 소식이 들려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예루살렘교회가 나오고 13장 안디옥 교회, 17장 데살로니가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 공동체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 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개척하게 합니다. 선교 공동체 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 습니다(살전 1장) 따라서 훈련 공동체입니다. 이 세 교회의 모형을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가정, 소그룹, 지역사 회 섬김, 세계 선교 등의 비전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재정의 30프로 이상을 선교하는데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싶었던 성도들의 지원이 연결되는 중입니다. 또한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할 것입니 다. 제자훈련을 마치면 셀 리더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 이민교회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역시 2~3세대의 신안입니다. Youth나 EM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키워낼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2세대에서 사역자나 목회자로 헌신하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유니온교회는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초중부, 중고등부에서 잘 양육해서 리더로 세우고, 나아가 다른 교회들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부족하지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근처에 있는 아주사대학의 한인 학생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소도 제공해주고 물질적 지원도 해줌으로써 캠퍼스를 전략적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학생 부부와 몇몇 한인학생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력이 느껴 집니까.

“보통 담임목사가 바뀌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고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전에 여러 사정으로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일궈왔던 분들이 다시 뭉쳤다고 할 정도로요. 유니온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인프리가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목회가 안정되면 이제 더 큰 차원으로 이민사회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에 ESL과정,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발행, 소셜 번호, 워킹퍼밋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미윌리콘도상가2층
월서+웨스턴코너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새창조교회 담임으로 정병재 목사 취임

최학량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정병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 드려

1995년 4월 최학량 목사에 의해 개척된 새창조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 교회는 지난 26일 주일 최학량 목사 공로(원로)목사 추대 및 정병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최학량 목사는 앞으로 원로 목사로서 새창조교회를 섬기며, 국가안보 강연 및 군 선교 사역을 위해 더 활발한 사역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 목사를 이어 새창조교회 새로운 담임으로 부임한 정병재 목사는 1977년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다 현재는 북음대학교(Evangelical University)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병재 목사는 "새창조교회 최학량 목사님을 이어 목회하게 돼



(좌) 새창조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정병재 목사, (우)원로 목사로 추대된 최학량 목사.

큰 사람의 빛을 진 것 같다"며 "부르신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최학량 목사는 1972년 1월 4일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0년 12월 26일까지 성실히 목회하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서부노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다. 한편 이날 예배는 박경춘 목사(삼일교회)의 집례로 진행돼 신현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원로 목사 추대식 답사로 전했다. 최학량 목사는 1972년 1월 4일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0년 12월 26일까지 성실히 목회하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서부노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다. 한편 이날 예배는 박경춘 목사(삼일교회)의 집례로 진행돼 신현

국 목사(북음대학교 총장)의 설교, 2부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이기홍 목사(미주군목회장)와 김봉건 장군(재미미국단체연합회장)의 격려사를 전했다. 3부 목사 취임식에서는 한기원 목사(가주남교회)가 권면, 최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지재일 기자>

ORT 칼리지에서 취업을 준비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ESL교육으로 잘 알려진 LA ORT칼리지가 최근 직업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준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변화 중이다. 졸업생들의 취업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LA ORT칼리지 한인담당 플라워 박씨는 "의료보험 개혁 시행을 앞두고 메디컬 빌링, 클리닉 어소시에이트에 전망이 밝다"며 "모



LA ORT칼리지 한인담당 플라워 박

취업 적극지원, 직업교육 다양화하고 준학사 학위도

두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연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어카운팅 분야(1200시간)의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과정 치과기공사 훈련도 마련돼 있다.

박 씨는 "이민 초기자나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도 상담을 통해 직업교육과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특히 학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포기한 채 방황하는 학생들이 적극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인담당 플라워 박씨 또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ORT칼리지 ESL 과정을 거쳐 약사 보조직을 수료한 후, 공부하는 과정을 눈여겨본

학교 측의 배려로 LA ORT 한인담당자로 발탁된 경우다.

그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전문기술이 없어 힘든 일 밖에 할 수 없었지만 ORT를 통해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며 "누구든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적극 도전하면 ORT는 그 기회를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LA ORT칼리지는 1880년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 64개국 900여개의 캠퍼스가 있다.

현재 ORT칼리지는 유학생들을 위한 I-20 비자를 발행하며 소셜번호, 노동 허가, 학생비서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소: 6435 Wilshire Blvd LA, CA90048

문의: (323) 556-5386(ORT칼리지), (213) 434-8128(한인담당 플라워 박)

<박삼미 기자>

나성한인교회 3대 담임으로 김성민 목사 청빙



김성민 목사.

나성한인교회는 12월 12일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3대 담임 목사로 김성민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나성한인교회는故 김의환 목사가 1975년 9월에 창립한 이민교회 대표적 교회로 김의

환 목사가 1995년 3월 은퇴한 후, 김영진 목사가 시무하다 지난 2010년 6월에 사임한 후 3대 담임 목사를 청빙 중이었다. 김성민 목사는 1981년 고등학생때 LA로 온 가족과 함께 이민 온 1.5세로 바이올리대학교에서 학사, (Biola University(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중이다.

목회 경력으로는 베델한인교회 교육 전도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청소년 전도사, 가나안장로교회 소속 가나안

잉글리쉬 채플(Canaan English Chapel-2세 교회)담임 목사, 1999년 7월부터 2010년까지 포틀랜드 베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나성한인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김성민 목사는 "현 교회에서 11년 6개월간 목회하는 중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교회가 더욱 새롭게 회복됐다"며 "이제는 성도들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 같아 새로운 목회지를 두고 기도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나성한인교회 청빙 수락에 대해 김 목사는 나성한



인교회의 외형이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부흥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힘을 합쳐 새롭게 도약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성한인교회는 2011년 1월 16일(주일) 오전10시 30분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겸한 담임 목사 취임예배 및 장로 임직식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김성민 목사를 3대 담임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사+월턴)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나눔과 기쁨을 소개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기 JSA

나눔과 기쁨의 꿈

※1 <나눔과 기쁨>은 2004년 7월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2005년 4월부터입니다. 어떤 기업의 지원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활동기로 일하면서 동네 안에 있는 교회, 학교, 기업, 병원, 식당, 정무, 주민 등 동네의 구성원들이 감사일반으로 돈을 내어 동네의 가장 어려운 자선위 계층을 도우면서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눔과 기쁨>의 활동가(나눔미)의 숫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들이 여의없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 말에는 나눔미 목사님의 숫자가 천명여 명이 되었습니다.

※2 2009년에 들어가서 <나눔과 기쁨>은 빈민나눔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가 빈민 도시락을 만들고 작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다보니 지금은 나눔미의 수가 2천여 명이 되고 나눔은 빈민도시락도 매주 8천개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에서도 꼭 필요하므로 2010년 말에 되면 톨럼없이 7-8천명의 나눔미들이 2-3만개의 도시락을 나눔 정도로 크게 확산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나눔과 기쁨>의 꿈은 이보다 훨씬 더 큼니다. 첫 번째 꿈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쓰지 않는 물건 모으기 운동, 의료봉사, 소비자봉사, 복지119, 다문화 센터, 지역아동센터, 나눔게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굳게 결속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 성장자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때에만 한국교회가 우리민족의 희망이 되어 크게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앞장 서는 것입니다. <나눔과 기쁨>의 선교사들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이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4 <나눔과 기쁨>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눔과 기쁨>의 꿈을 함께 꾸고 이를 실현하는 일을 함께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한국상임대표
강지원, 서경석, 손봉호, 손인용, 오호석, 이광선, 최성규
www.joyofsharing.org

미주본부 연락처
17002 Prairie Ave #1004, Torrance, CA 90504
☎ 714-393-4452

발기인 조직
공동대표: 간수용목사, 김창호목사, 모종태장로, 박효우목사, 지용덕목사, 양기호목사, 정해진목사, 한기원목사
본부장: 강신권목사

각 분과 위원회 (장)
기획분과위원장: 김종용목사 홍보분과위원장: 전영훈목사 대외협력분과위원장: 백문경목사 다민족분과위원장: 황선학목사, 이종식목사
Network분과위원장: 이미란목사 NGO분과위원장: 박은중목사 기업분과위원장: 황선철목사 문화분과위원장: 방동섭목사
3세계분과위원장: 정훈기목사 의료분과위원장: 이순옥목사, 이남현박사

나눔과 기쁨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삶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김용호목사(Cell 714-393-4452) 미국본부 사무실: 17002 Prairie Ave #1004, Torrance, CA 90504

한 겨울 '따뜻한 그림으로' 초대

'절경' '봄이 오면' '그해여름' '아낙'... 차가운 돌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일까 보았더니 그 옛날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우던 구들돌이라고 한다. 섬세한 화가의 손길은 구들돌의 온기마저 살려 내는 듯 했다. 평범한 주부가 그려낸 소박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림 속에는 작가의 감각과 이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그렇기에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모습이다.

이 작품들은 현재 한국의 모산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2

그런데 내면의 깊은 세계에는 태초의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아담과 하와처럼요. 태초의 순수함에 대한 추구는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원을 열망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백은숙 작가는 작품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전하고 싶어 했다. 상처를 싸매주는 따뜻한 그림, 낙담하고 좌절한 분들에게 드리는 희망의 그림을 말이다. "하나

마다 작품이지요. 지난 97년도에 성지 순례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경이로운지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 각국을 돌면서 저의 그림과 글과 사진을 담아 여행 에세이를 내보고도 싶구요, 선교에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평범한 여성에서 그림과 글, 사진으로 예술가의 이름을 더한 백은숙 작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마치 하나님께 폰티가 짜여 있는 기분이예요. 전 그것을 하나



백은숙 작가 © 지재일 기자

백은숙 작가 "모산 미술관으로 여러분을초대합니다"

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여행 곁팔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온 백은숙 작가는 교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초대장을 보냈다.

백은숙 작가는 타고난 재능을 품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다 뒤늦게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부유하지 못했던 가정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없었고 조금 일찍 결혼한 탓에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주부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현재의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때문에 작품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의 모습은 작가와 같은 여성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작가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내면의 깊은 세계에 있는 자신도 모를 순수세계를 추구하며 회화로 승화시켜낸 작품은, 바탕을 깔아 놓고 덧칠하는 기법으로 좀 더 깊고도 깊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아주 순수한데 살다보니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님이 주신 달란트이고 이렇게 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어요. 작품을 통해 좀 더 성서적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순수하고도 근본적이 뿌리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백은숙 작가는 그림 외에도 글과 사진을 통한 작품 활동도 하고 있다. 때론 그림쟁이, 때론 글쟁이, 때론 사진쟁이가 그녀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이다. 하나의 피사체를 두고 일인 삼역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넓잖아요. 보이는 것

씩 걸어가는 것이 구요. 정말 멋지게 풀어 가실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백은숙 작가의 작품 전시가 아직 미국에서 이뤄진 적은 없지만, 그녀는 작품을 통해 교민들과도 교감하고 싶다고 했다. 설 명절을 맞아 고국을 방문한다면 한번 찾아가볼만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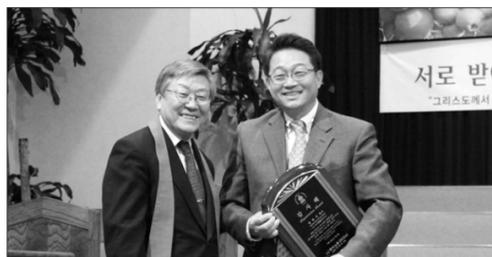
모산미술관: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274(Tel. 933-8100)

작가 블로그: <http://blog.paran.com/silver0372>

(박삼미 기자)

한미노회 '하나님 구원'이라며 '화해와 일치'를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신년하례예배 및 노회장 이취임식 열려



(좌)한미노회 신임 노회장 최형호 장로가 전 노회장 변윤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국장로교 한미노회(노회장 최형호 장로)가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며 '화해와 일치'를 소망했다.

1월 4일(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예배에는 노회산하 20여개의 교회, 노회원,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예배에 이어 노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2011년 한미노회를 이끌 최형호 장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만이 노회장의 권위를 세울 것"이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 장로는 "여러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아왔다"며 "수많은 강을 하나로 품어내는 바다처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되는 노회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전 노회장 변윤선 목사(영은장로교회) 역시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

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될 것"이라 이임사를 전했다.

신년하례예배는 신임노회장인 최형호 장로가 설교했으며 류준영 목사가 기도, 박일영 목사(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봉헌기도를 했다.

(박삼미 기자)

사랑의 쌀 후원 교회 · 한인기업에서 연이어

12월 30일(목) 오전11시,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에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몇몇 노인들이 새벽4시부터 기다림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지난 18일 불우이웃 개인을 위한 제1차 사랑의 쌀 나눔 잔치에서 쌀을 받지 못한 이들이 쌀1포 선불 교환권을 들고 추운 날씨에도 먼 거

리교회, 벨엘장로교회, 주님세운교회, 남가주빛내리교회, 미주평안교회, 충현선교교회, ANC온누리교회, 베델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쌀 5,000포가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관계자는 "1월 4일 현재 총 후원금은 \$89,874"이라며 "지난 30일에는 LAX 아시아

의 열기를 더욱 뜨거우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부금 액수는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했다. 또한 이 목사는 "18일 불우이웃 개인 수혜자를 위한 1차 나눔 잔치와 30일 비영리단체를 위한 2차 나눔 진행을 마쳤으나, 한인 기업이나 대학교 동창회, 각 교회 성탄절 예배 헌금 등의 금액이 아직 모이고 있다"며 "2011년 1월까지 모금해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히스패닉 등 타 커뮤니티를 위한 나눔 운동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30일, 1월 4일 후원자 명단)

- △벨리연합감리교회(장동일 목사): \$1,000 △얼바인침례교회(한중수목사): \$1,000 △남가주사랑의교회: \$500 △코트라 LA지사(윤원석 센터장): \$500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 \$1,000 △김진: \$1,000 △아시아나 항공 LAX직원 일동(최창렬 지부장): \$1,500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13) 384-5232 (지재일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린 제2차 사랑의 쌀 나눔 잔치

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도착한 것으로 했던 2차 나눔 잔치는 나눔선교회, 거리선교회, 소중한 사랑들, 남가주농야교회 등의 단체들에게 각각 전달됐으며,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나성동산교회, 나성중앙연합감

리항공 직원들과 코트라 LA지사 직원들이 심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받아 이웃 나눔의 따뜻한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성동산교회에서 쌀을 나눔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전년도에 비해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축
신
년

모든 교역자와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고 문 - 박영창, 임동선, 조천일, 류당열, 이선주, 안상협, 임종희, 김석웅, 장창혁, 장혁, 김인수					
자 문 - 구기조, 김사무엘, 함명철, 홍영환, 반중근, 김영모, 원희천, 성충정, 김재연, 황천영, 김인식, 이재영, 김성덕, 송정명, 석창균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신회 법률 분과: 김총립 사회봉사분과: 이동영 퓨리탄 연구분과: 이원재 다민족분과: 김태현					
예배분과	진유철	부정부패추방	김문철	교회 경신분과	방동섭
교육분과	김희창	사회단체교류	김원선	무료 병원 설립	정순규
선교사분과	이재환	선교분과	이원갑	호스피스분과	이정우
여교역자분과	강명숙	음악분과	데이빗	개혁교회분과	이종용
성경번역분과	이원열	평신도신교분과	임혜빈	전도사 분과	채동선
성경정독분과	김정득	신학 분과	김인수	봉사 분과	조우연
홍보 분과	남철우	체육 분과	장병철	통역 분과	홍윤표
청소년분과	박용수	복지 분과	박성근	영성 분과	유기종
의료분과(양)	강신욱	찬양 운동분과	구옥현	친교 분과	서사라
상담 분과	다윗 박	간병인 분과	자넷희	여성 분과	서인애
장애우 분과	공드혜미아	원로 분과	유용열	의료분과(한)	박영권
장로 분과	이신모	연혼 분과	드보라킴	노숙자 분과	그로리아킴
					미약도박희지

■ 부 회 장: 권오달, 박호우, 방동섭, 박현성

이성주, 백형로, 지운성, 장병철, 강신욱, 윤삼혁

■ 협력부회장: 엄테레사, 임형주, 김창집, 이주호

■ 총 무: 백성식

■ 부 총 무: 양병삼, 김원락, 마원철, 이상익

■ 실행 총 무: 김영배

■ 서 기: 서요한

■ 회 록 서 기: 진석호

■ 회 계: 이병호

회장: 표세홍 목사

남가주 순천 매산 동문회

MAISAN ALUMNI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9 Cortona, Irvine, CA 92614

신년 하례식 및 총회

매산 은사님과 동문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 설기사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꼭,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시기 바라며 불참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주 매산동문회회장 정종문 배상)

▶ **일 시:** 2011년 1월 8일 (토) 오후 6:30

▶ **장 소:** J J Grand Hotel 2층 코스모스 홀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회 비:** 개인 \$30, 부부 \$50

회 장 정종문 (562)-250-7770 총 무 김영규 (949)-378-5533

부회장 한봉현 (310)-951-2493 서 기 표세홍 (213)-248-1148

[새벽강단 25] 동부사랑의교회 새벽예배

부흥의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죠! 삼상16:7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람이나 네상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테오의 정신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또한 신앙은 체면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체면은 일종의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도전과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실 관값의 절반을 바친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체면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과 전심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체면이나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2:20-21) 전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딤후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라. 2011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진해 가면 우리는 부흥의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했던 초대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가 아닙니까? 신앙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고 재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과 필요한 곳을 위해 쓰라고 사도들 앞에 헌금했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부는 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베드로 앞에 꼬꾸라져 죽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발을 관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관값의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6:7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6:7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6:7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갈6:7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보다

2011년 새해 첫 새벽강단 설교는 동부사랑의교회 담임 박승규 목사이다. 새해를 맞아 신년특별기도회를 하는 것과 달리 동부 사랑의 교회는 지난 추수감사절로부터 오는 부활절까지 133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100일 기도예 수님의 생애 33을 더한 133 일이다. 동부사랑의교회는 이 기간을 통해 삶을 드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부 사랑의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 정결한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며 기도했다.

〈본문: 행 5장 1~11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박승규 목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체면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과 전심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체면이나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2:20-21) 전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딤후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라. 2011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진해 가면 우리는 부흥의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체면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과 전심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체면이나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2:20-21) 전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딤후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라. 2011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진해 가면 우리는 부흥의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체면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정과 전심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체면이나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2:20-21) 전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딤후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라. 2011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진해 가면 우리는 부흥의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벤츄라감리교회



벤츄라감리교회 담임 최상훈 목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황 권사

그때 최상훈 목사는 알라스카에서 목회 중이었다. 알라스카 예광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알라스카에서 손꼽히는 한인교회를 맡고 있었다. 그런 최 목사에게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것과 다름없는 작은 교회의 청빙요청이 들어왔다.

세상에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 그렇그런한 성도들의 교회가 또 있을까. 교회와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벤츄라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를 다녀왔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최상훈 목사는 작년 9월 알라스카 예광교회의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올해 1월 벤츄라감리교회로 왔다. 그리고 올해 3월 7일 정식

최상훈 목사부임 후 안정 되찾고 부흥 거듭해

않았다. 담임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와 성실한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목사(담임 목사)의 삶이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벤츄라감리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보다 더 행복하고 은혜 되는 일이 없었다.

취임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상처 많은 교회에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오신 목사님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994년도에 설립된 벤츄라감리교회는 최상훈 목사가 부임하기 전 담임목사 청빙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성도들은 흩어졌고 남은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을 위해 그저 눈물로 기도하던 중이었다.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던 그때 하나님은 최상훈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려주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부임한 최상훈 목사는 한 성도가 마련해준 방을 마다하고 2주간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최 목사의 헌신적인 목양과 강력한 메시지는 갈급한 벤츄라감리교회에 큰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상훈 목사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

"강단 메시지는 정말 강력한데 목사님의 삶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낮아지고 비우는 목사의 삶은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이름변경\$290
- 시민권 수속 \$100 •공증 \$10

20년을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면,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센터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보고 성도들의 삶에도 변화가 왔다. 목사를 통해 낮아지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도를 더욱 가까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간증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자 최상훈 목사가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벤츄라감리교회는 2배 이상의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상훈 목사의 목회철학은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이다. 여러 가지 목회 방법보다 그것을 통한 '예수님 바라보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 목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가장 완벽하게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교회 질서의 원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소로만 답했지만, 최상훈 목사는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한다'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었다. 최상훈 목사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건물이거나 교세와 관계없이 가장 칭찬받는 초대교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상훈 목사는 서울예광교회 최덕순 목사의 차남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연세대학원 교회음악과,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감리교 선교훈련원을 수료하고 한국 감리교 최초로 구간다 부시야교회를 개척해 6년간 사역을 했으며, 한국 감리교 최초로 알라스카 예광교회를 개척해 7년간 목회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등 부흥을 이끌었다.

벤츄라감리교회는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벤츄라지역의 부흥과 모든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음악교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벤츄라대학 내에 COG(대학연합교회) 개척해 캠퍼스 전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홈페이지: www.venturako-re.com / 문의: (805) 658-2171, (805) 861-0094

(박삼미 기자)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월 1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목회자 사모 위로의 밤

남가주 한인목사회는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모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환을 같이 나누고자 다음과 같이 목회자 사모 위로의 밤을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6시
◇ 장소 : 만리장성 989 S. Dewey Ave. LA CA 90006 (Olympic + Dewey)
◇ 대상 : 미자립교회 사모님 우선. 선착순 100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문의 : 박효우목사 213-503-3355 김순옥사모 714-392-9578

* 2010사망의원서드름을 위해 후원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박효우 목사
준비위원장 김순옥 사모

본지 선정 2010년 남가주 교계 10대 뉴스



◆ 남가주 교계 센서스 인구조사 지원

2010년 10년 만에 다시 진행된 미국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위해 남가주 교계가 함께 동참했다. 남가주 교계에서는 지난 3월 7일을 센서스 주일을 지정하고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센서스국이 12월 21일 발표한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 인구를 3억 874만 명으로 2000년 2억 8,140명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3,72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티, 칠레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2월 27일 칠레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남가주 교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구호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티는 지진으로 인해 22만 명이 사망했으며 지금은 극심한 지진 피해와 콜레라가 창궐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상태다.

◆ 남가주 교계, 연평도 도발 규탄 선언문 채택

남가주 교협, OC 교협, 남가주 한인목사회, OC 목사회의 교계 지도자들은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하자, 규탄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의 본토를 포격한 것은 휴전 이후 60년간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를 평화를 깨뜨린 무력도발이며 야만적 공격행위라고 규정했다. 11월 28일과 12월 5일을 조국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화합을 회복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각 지역 교회 협의회 신임 임원 선출



지난 11월 월드비전 구호 직원이 아동들에게 콜레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LA총영사관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된 1차 사랑의 쌀 나눔 잔치에서 한 노인이 쌀을 전달받는 모습.

대사회 및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 낸 한 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41차 정기총회를 열고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를 회장에 선출했다. 민중기 목사는 교협 40년의 역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 교회와 한인 커뮤니티 간의 소통과 연합에 주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힌 한편 40대 교협에 이어 남가주 작은교회 살리기 협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가 2011년에도 회장으로 연임됐으며,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

자협의회는 김원락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는 ILPI(Love Pastor)운동을 전개했던 이정현 목사를 이어 박효우 목사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임원들은 교계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며, 또한 작은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의 영성 훈련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신천지 등 이단대책 위해 적극 나서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는 올해 정기적으로 각 교회에서 이단대책 세

미나를 개최하고 신천지 등 교회 내 이단세력들을 경계할 것을 요청했다. 한선희 목사는 교회내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신천지가 최근에는 적극적인 포교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며 성도들을 미혹해 가정과 교회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가주 한인교회들 젊은 리더십으로 교계

유니온교회(문병욱 목사), 사랑의빛선교회(최희 목사), 나성한인교회(김성민 목사), 남가주로고스교회(유재문 목사), 나성한미교회(전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등의 교회들이 올해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정했다. 1세 원로 목사들은 은퇴시기를 맞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 원로 목사로서 동역하면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대외 선교, 집회 인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1세 목회자들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 받은 준비된 목회자이거나 1.5세로서 미국의 교육과 문화 등을 빠르게 이해하고 있어 남가주 교계의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탈북 고아, 미국 입양 법안 통과 위한 추진 / KCC 햇볕기도회

파사데나에 거주하고 있는 샘한 이사장(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www.han-schneider.org)은 청소년 시절 아더 슈나이더(Dr. Arthur Schneider)의 아들로 입양돼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는 중국내 수만 여 명에 이르는 탈북 고아들을 위한 '탈북고아입양법안(H.R. 4986)'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011년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탈북자 입양법을 위해 미국내 '한인교회연합(KCC, 대표간사 손인식 목사)'은 지난 7월 워싱턴에

서 햇볕기도회를 열고 북한 인권전략회의, 인권 고발 및 탈북자 지원 모금을 위한 워커톤(Walk-erthon) 등을 실시했다.

◆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한 사회 NGO단체들

1950년 한국 전쟁때 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은 2010년 창립 60년을 맞았다.

전세계 가장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NGO로 성장한 월드비전은 올해도 아이티, 칠레 지진 구호활동과 인도네시아 화산사건, 태국과 필리핀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에 구호팀을 파견했다.

굿네이버스는 아이티 지진이 일어나자 긴급 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아이티의 재건과 지역발전 위한 10개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현지 가정에 구호물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심리상담, 교육, 주택재건 및 보호 등의 재난복구사업을 통해 이재민들이 재난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 미주 지사를 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후원 사업을 확장한 컴패션은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진작가 허호 씨의 미주 LA 사진전을 오픈뱅크에서 개최했다.

◆ 자마 대표 김춘근 교수의 미국의 영적 재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전국 순회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재일 기자)

김춘근 교수는 1985년 기도 중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사명을 받은 후 1993년 자마(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를 시작하고 1994년, 1998년에 이어 지난 8월 15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제3차 전국 기도순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춘근 교수는 미국의 영적 부흥은 한인들의 사명이라며 타락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각 분야를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를 양육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30만 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있다.

◆ 연말 불우이웃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 활성화

남가주 각 교회에서 실시되던 불우이웃을 위한 쌀 나눔 운동이 2009년 LA 총영사관, 한인회 등 한인 단체 및 언론들과 함께 제1회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시작됐다. 2회를 맞은 올해에도 독거노인들과 한인 커뮤니티내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플러스]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 와이낫파운데이션(YNOT Foundation)은 설립 7주년을 맞아 한인 및 다민족 지역사회 후원의 의미로 59개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총 20만불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각 단체들을 위한 후원금은 비영리단체들의 사역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LA 한인교 타인종 커뮤니티까지 삶의 질적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정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ADCC)

John Ko
☎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 -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미국 교계, 기도와 금식으로 2011년 시작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2011년의 첫 달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300여 교단들이 협력하고 있는 영적 부흥과 갱신을 위한 네트워크인 '어웨이킹 닐 어메리카 얼라이언스(AAA: Awakening America Alliance)'는 이번 1월 한 달간 21일 동안 기도와 금식 운동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00대 교회 중 한 곳인 플로리다 주 잭슨빌 셀러브레이션 처치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각성을 위한 21일(21 Days for A New Awakening)' 운동은 매년 1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교회와 지

역 사회, 국가의 부흥을 도모해 왔다. AAA 산하 영적갱신을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piritual Renewal) 대표 빌리 윌슨 목사는 "미국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것"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CP)에 밝히고,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지금 어둠에 둘러싸인 영적 파괴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영적 갱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결단과 그에 따른 실천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셀러브레이션 처치 담임인 스토틀 워즈 목사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소음과 어수선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다"며 "금식하고 기도에 주력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에 리셋 키를 누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한 해를 보낼 때 그 해가 우리에게 최고의 해로 남을 것"이라며 "당신이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번 기간이 우리를 영적 성장의 더 높은 단계로 데려다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미국 전역에서 1백만 명 가까이 이 운동에 이미 참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워즈 목사는 알렸다.

(손현정 기자)

이집트, 교인 겨냥한 테러로 새해 첫날 120여명 사상



국제사회 · 교계 연이어 규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못해"

이집트에서 새해 첫날 기독교인들을 겨냥해 발생한 테러로 사상자가 12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세계 교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각)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콥틱 정교회 성당인 세이츠 처치 밖에서는 자정 미사를 드리고 나오던 인파들 가운데서 자살 폭탄 테러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이 일어나 현재까지 21명이 숨지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테러는 최근 몇 년간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했으며,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

합(EU) 외교위원회장 역시 "어떤 이유도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력한 비판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 이집트 경찰 당국이 배후 세력으로 의심되는 7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이집트 콥틱 교인들은 정부와 교계 지도자들에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좀더 나은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이미 달 전 알 카에다로부터 교인들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이 있었으나 어떤 대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집트에서는 콥틱 교회력으로 성탄절이 있었던 작년 1월에도 무장괴한들이 성탄 미사를 드

리고 나오던 교인들에게 무차별적 총격을 가해, 6명이 사망하고 무슬림 행인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세계 교계 역시 규탄과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울프 트비트 총무는 성명을 통해서 이를 "무고한 예배자들에게 대한 극악무도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에쿠메니칼 교계 대표로서 희생자가족들에게 위로문과 기도문을 보내기도 한 그는 "지도자들이 종교간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들은 이집트 7천9백만 인구 가운데 12%를 차지한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집트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커뮤니티는 오랜 평화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독교 인구의 눈에 띄는 증가가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한 박해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손현정 기자)

릭 워렌 목사, 개척 위해 매년 1백만불 기부 약속



퍼스교회 및 독립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한 새들백교회는 '운명의 10년(Decade of Destiny)'이라는 캠페인 아래 개척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워렌 목사 부부는 일년에 1백만 달러를 3년 간 기부할 것을 약속했으며, 캠퍼스교회 개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5천개의 소그룹 및 가정을 모집, 훈련할 예정이다.

워렌 목사는 "리더십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가 시작된 후 지난 30년 간 예수님의 원리에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 왔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담임 목회자로서 본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똑같은 은사가 아닌 똑같은 희생을 강조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잘 알려진대로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로부터 월급을 전혀 받지 않고 책 인세로 생활하는데, 그 수익에서도 91%를 사회 혹은 교회로 환원하고 있다.

12월 안에 현금 5백 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5개 캠퍼스 개척을 추진한 새들백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 깊이 확신한다"는 릭 워렌 목사의 진두지휘 아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제 새들백교회는 인터넷 캠퍼스를 포함해 남가주에만 10개의 캠퍼스를 가지게 됐다.

(권나라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 대형교회의 캠퍼스화, 그 선두에 선 새들백교회(담임 릭 워렌 목사)가 지난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5개의 캠퍼스를 추가로 확장했다.

앞으로 10년 간 총 100개의 캠퍼

파키스탄 이슬람 성직자들, 신성모독법 개정 반대

신성모독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에서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온 가운데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성직자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2009년 6월 아시아 비비는 무슬림 동료들에게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한 파키스탄 여성이 이어진 말다툼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호메트는 우리를 위

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다가 체포되어 신성모독법 혐의를 받았고 작년 11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법이 비무슬림들에 대한 종교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현지 교계 지적에 따라 철폐까지는 아니지만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고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비의 무죄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파키스탄 연

방소수국 사바즈 바티 장관을 위협하고, 비비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던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번 개정안 검토에 대해서도 맹렬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에 따르면 이들은 또한 비비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면서 마호메트를 모독한 이에게 마땅한 응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을시 누구든 비비를 죽이는 이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자동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임상철 목사 첫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후원자: 임상철 목사(남가주리디머교회 부교역자) 수혜자: 문형미 전도사(나성순복음교회)

주관: LA교역자협의회, 기독교일보 후원: NARA AUTO 바디, LA 정비 연락처: 기독교일보 213-739-0403, 213-718-1512

칠후갈던 죽음의 순간... 중보기도 위력 실감해

▶ 박재희 사모 1% 생존 확률에서 살아난 소감 간증

3일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열린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에서 박동서 목사(방주교회)가 일 년 동안 있었던 일을 수 없던 긴박하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박재희 사모는 지난해 생존확률 1% 진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박동서 목사와 박재희 사모는 지난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며 일어난 은혜의 역사를 고백했다.

박동서 목사는 지난해 부활주일일에 발생한 박재희 사모의 사건을 설명했다. “지난해 부활 주일에 아내가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쓰러졌다. 새크라멘토에서는 아내를 치료할 수 없어,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 뇌신경외과로 헬리콥터를 통해 급히 후송하게 됐다. 아내를 병원으로 보내고 나는 차를 몰면서 샌프란시스코로 달렸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새크라멘토에 폭우와 황사가 자욱했다.”

“병원에서는 아내의 병이 ‘뇌동맥류’라고 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병이었다. 평소엔 혈관질환이 전혀 없던 아내였는데.. 병원에서선 선천적인 병으로 원인규명이 안된 병이라고 했다.”

뇌동맥류로 찾아오는 사람 중의 약80%가 아시아-아메리칸이며 그 중 80%가 한국 여성들이다. 이중 대다수가 갱년기 여인이며, 혈관 벽이 어느 순간 터지는데 매우 치명적이다.

▶ 뇌동맥류 4등급.. 생존확률 1%, 지난 4개월간 90여명 모두 사망

“아내를 진단한 의사는 솔직히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했다. 뇌동맥류 환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내내는 4등급이었다. 1등급은 우연히 알게 된 경우에 붙여준다. 5등급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출혈이 너무 진행됐고 의식불명상태면, 4등급이다. 4등급인 아내의 생존확률이 얼마냐고 했더니 1%라고 했다. 지난 4개월간 이 병원에서 뇌동맥류 4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90여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했다.”

이때부터 매일매일 고통스런 순간이 시작됐다. 뇌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다리 쪽에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를 수술하는 방법을 시도했고, 미세한 뇌동맥을 따라가는 수술을 3시간 동안 하고 나서 포기했다. 의사는 1차 수술이 실패였으므로, 대안은 한 가지이며 뇌 절개 수술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술하지 않으면 더 생존확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동서 목사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대기실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옆드러 기도했다. 바로 15년 전에 뉴저지에 평신도로 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15년 전 목회자 길로 들어서게 했던 사건 떠올랐다

“그때도 아내가 셋째 아이를 가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황격막에 피가 차서 혈액의 2/3가 이미 출혈된 상태였다. 의사가 3시간 수술 후 수술도 안 돼 생명을 이제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12년 동안 평신도로 있으면서 목회자를 안 하겠다고 도망 다녔던 나

였다. 나는 아내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복도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빌 4:6-7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아내를 살려주시실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다. 무조건 감사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기도했다.”

마침, 어느 한인 2세 산부인과 의사가 당직이 아닌데도 산부인과에 우연히 들렸고, 그 의사는 출혈이 심한 사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의사는 한 달 전에 사다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기계를 이용해 박 사모의 3,500cc 출혈된 피 중에 1,800cc를 다시 집어넣었다. 박동서 목사는 “나는 그분이 하나님에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다시 위로의 말씀 주신 하나님

박동서 목사는 “그 아내가 이번에 또 쓰러졌다”고 말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라며 울면서 기도했다.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주



지난 1월 3일 박동서 목사(방주교회)는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에서 일 년 동안 있었던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셨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번에 박재희 사모 뇌 절개 수술을 도와줄 분을 찾은 과정도 극적이었다. 병원을 소개해준 형제가 급하게 사모를 수술해줄 수 있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의에게 부탁했다.

그 전문의는 유대인이었는데, 병원에서 남아있던 유일하게 뇌 절개를 할 수 있는 전문의로 난 아내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라며 울면서 기도했다.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주

▶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위에 계신 분에게 부탁해보십시오.

위험한 상태에서 뇌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터진 부분을 찾았는데 동시에 또 미세혈관이 또 터졌다. 이것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손가락에 꼽을 만하다고 했다. 그 전문의는 놀라게도 두 손으로 동시에 완벽히 지혈시키고 나서 절개한 뇌를 담았다. 8시간 수술이었다. 수술 후 그 유대인 의사는 “당신이 목사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지혈을 막았을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습니다. 이후로는 위에 계신 분에게 직접 부탁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뇌동맥류 환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들어올 때 30%가 죽고 들어와서 30%가 죽고 수술이 끝나고 14일안에 33%가 죽는다. 14일 기간을 버틴 1%의 사람만이 생존한다.

“매일 매일 아내의 상황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소식이 가정교회본부 사역페이지에 올라갔고 수많은 곳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이 들어와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7천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하지 알게 되는 선물이었다. 어느 목회자는 “새크라멘토 40여년 있으면서 한 사람의 교회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에 본적이 없다고 했다.”

박동서 목사는 “저녁에 모여서 나와 내 가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아프고 나

서 홈페이지 중보 기도방에 오는 분의 수가 달라졌다. 기도는 함께 할수록 많이 할수록 강하다”며 “교회가 이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 후 2009년부터 천일동안 교회와 선교사,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지금은 2년이 끝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진 분은 12명이다. 끝까지 해내겠다고 휴가도 안가셨다. 더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서 목사는 “지난 한 해동안 아내 살려달라고 한 것 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목회하던 것보다 더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35명이 지난해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전에 많이 부흥회강사로도 활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아내와 성도들과 함께 매일 강단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깊이 기도해야

박재희 사모는 그동안 기도해 주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 사모는 “속마음이 세상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 머리로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랑하는 리더가 교회를 떠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 일주일에 한번씩 금식기도를 했다.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때였다. 쓰러진 날에 갑자기 ‘머리 터졌다고 빨리 말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아들한테 머리터졌다고 말하고 나는 순간 코마 상태가 됐다. 정신이 나면서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했다. 이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전쟁’이다. 치료 이후에도 계속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왔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왔다. 지난번처럼 기도하면 머리 터진다고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시 결단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깊이 기도해야한다. 식사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중보기도할 때 역사가 크다.”

(임형진 기자)

산호세한인장로교회 6개월 이후 새예배당으로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가 새로운 건물을 구입, 6개월 후에 예배를 드린다. 6개월 간 교회 내부 수리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교회인 Iranian Christian Church를 사용할 예정이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측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 때문이며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 격려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6개월 후에 공사

가 끝나고 들어갈 새 예배당은 주소가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Wolfe Dr. 와 Central Express Way 교차하는 지점)이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는 실리콘밸리지역에서 새로운 자체 예배장소를 얻기까지 6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해왔다. 6년 전에 있던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고 성도들이 오기 편한 중심적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기존 예배당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을 파는데 2

년이 지났고,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2년 동안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앞으로 임시적으로 주일예배를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란 크리스천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새로운 건물인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토요 새벽기도회를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란 크리스천교회에서 드릴 예정이다.

(임형진 기자)

총신디지털

●●●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3:00 중고등부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1130 N. East St, Anaheim, CA 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중부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기도 5:30(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http://www.visioncc.org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시 오전 5시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민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우/일)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한기총 신년하례예배... 이광선·길자연 목사 등 참석

“분열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 써나가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2011년 신년하례예배가 3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신년하례예배는 이만신 목사, 립인식 목사, 최성규 목사 등 명예회장들을 비롯해 이광선 대표회장과 길자연 차기 대표회장 등 교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비서관,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CTS 구본홍 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의 인사말 이후 립인식 명예회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고전 10:31-33)’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립 명예회장은 “2011년 한기총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라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며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사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



최병남 목사가 이날 참석 인사들에게 재개발관련 시국기도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식 2주째를 맞은 최 목사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 © 이대웅 기자

롭게,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 명예회장은 “제 시대에는 사실 신학이나 사상, 교파나 교회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다 깨닫이 회개하고, 분열이 아닌 예수 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를

써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는 6일 오후 2시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가 주최하는 시국기도회를 위한 홍보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단식을 하던 목회자들 4명은 예배 장소

인 중강당 앞에 앉아 있었고, 최병남 목사(예장합동 재개발대책 특별위원장)는 앞에 나가 참석 인사들에게 기도회를 개최한 계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이용호 공동회장)’,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이영주 환경보전위원장)’, ‘한기총과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하태초 장로)’ 특별 기도했다.

공동회장 윤석희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부회장 김윤기 목사가 대표기도, 공동회장 전성원 장로가 성경봉독, 한기총 합창단이 특송, 서기 문원순 목사가 이광선 대표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낭독했고, 총무 김운태 목사가 광고와 인사를 맡았다.

예배는 최성규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윤종관 목사의 기도 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나누며 교제했다.

〈이대웅 기자〉

소망교회 폭행 사태, 근본 원인은...

곽선희 원로목사·김지철 목사 사이가 문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 크리스천투데이 DB

이번 소망교회 폭력 사태에 대해 MBC 등 언론에서는 “은퇴한 곽선희 목사와 현 담임인 김지철 목사의 알력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소망교회는 지난 2003년 곽선희 목사가 은퇴 이후 부담한 김지철 목사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 보도에서 소망교회 한 성도는 “이번 사태는 두 목사 사이가 갈 때 까지 갔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망교회 내 폭행사건은 지난 2008년에도 있었는데, 김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반대파 집사를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폭행을 가

한 것으로 알려진 두 부목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지철 목사가 광대뼈 함몰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는 등 폭행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소망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조속히 법적으로 규명돼 엄정한 의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망교회가 더욱 성숙해져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소망교회는 한국 기독교계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선한 섬김의 모습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현재 이번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소망교회 난투극’, ‘목사들 사이에 주먹다툼’ 등 다소 왜곡·비화돼 하루종일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집중포화를 맞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장총 새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 한 국장로교총연합회 제28회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와 상임회장 윤희구 목사(창원한빛교회) 취임 감사예배가 30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

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에는 5백여명의 교계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대웅 기자〉



이중윤 직전 대표회장(좌)이 양병희 대표회장(우)에게 취임패를 수여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첫 주일예배, 이동원·진재혁 목사 함께 나와 ‘릴레이 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와 진재혁 담임목사가 새해 첫 예배에서 ‘릴레이 설교’라는 독특한 형태로 예배를 진행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이동원 목사가 13절을, 진재혁 목사가 14절을 각각 이어서 설교한 것. 설교 본문 중 13절은 과거에 대해, 14절은 미래에 대해 각각 이야기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예배에서 이 목사는 “순전히 진재혁 목사님의 아이디어다. 저는 오늘부터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고 웃으며 먼저 설교를 시작했다.

이동원 목사는 “우리는 과거의 실패 뿐만 아니라 성공까지도 잊어야 한다”며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계속

목상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목상하는 그 순간 현재는 별 불일 없고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원 목사 시대를 추억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교한 진재혁 목사는 “2011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두 가지는, 새로운 목표와 출발”이

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목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의 333 비전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명(mission)”이라며 “말씀



진재혁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이동원 목사는 앞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제공

하시는 그 분께 집중하고, 그 분의 시선을 고정할 때 더 위대한 미래를 향해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촌교회는 8일까지 ‘위대한 동역’ 신년 축복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설교를 말한다 ⑤

상계교회 서길원 목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흔한 척도는 무엇일까. 옳고 그름의 당위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설교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 같다. 목회자는 오직 설교로 말하고 설교로만 규정된다는 주장도 있으니, 이것에 기대자면 설교는 목회의 처음이자 끝이다. 크리스천투데이는 기획 인터뷰 '설교를 말한다'를 통해 설교라는, 그 끝없고 오묘한 세계를 엿본다.

지난해 3월, 그는 미래목회포럼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설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전국 목회자 100여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강의 제목은 '경쟁력 있는 설교 만들기'. 얼굴에는 선배 목회자다운 여유와 자신감이 있었고 말에는 청중을 사로잡는 흡인력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저물어 가던 2010년 12월의 어느 날, 그를 다시 만났다. 서울 상계동 상계교회 담임 서길원 목사. 그는 달라져 있었다. 여유와 자신감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때의 그것과는 어딘지 다르게 다른 느낌이다.

"설교....., 전 누구보다 설교적 테크닉을 잘 구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교인들이 은혜 받는지, 말의 톤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화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난 25년간 설교하면서 익힐대로 익혀온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 점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물론 머리론 익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잊은 게 있구나!"

그랬다. 그에게서 본 자신감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교인들 입맛에 안맞아도 하나님 하라는 말씀 전해야

어느새 인본적이 된 나... 이제 기도 더 많이 하려 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그것, 바로 그것이였다.

-최근 몇 주간, 섬김을 주제로 신약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힘 있고 생명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께 일어난 기적 이야기도 더 많구요. 특별히 생명을 다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섬김의 왕이신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마가복음을 선택한 거죠.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닮는 길 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섬김받으려고만 하고 섬길 줄은 모르는데,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죠."

-이런 강해설교는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본문을 달리 하는 설교에선 본문 선택이나 설교 내용에 설교자 개인의 견해가 개입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순서대로 본문을 이어가다 보면 다소 어렵거나 주제가 설교자 구미에 맞지 않아도 일단은 전해야 하니까, 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설교란 어떤 걸까요. "전 설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고, 주변에서 설교 좀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딘지 누구보다 잘 찾아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강단에서 서서 누굴 위해 설교했는가' 하고 제 자신에게 되묻곤 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교인들 입맛에 안 맞는 설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그 것에 집중해 설교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는 건

강해질 거라는 확신 말이죠.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라면 오히려 주는 게 정상일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포커스를 다시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인본적이었잖아요... 아니, 한국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제 자신부터 그랬습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할 때 한국교회 강단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목회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되나요.

"설교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 없는 집이 없듯, 설교 없이 교



서길원 목사, 그는 스스로 "누구보다 설교적 테크닉에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깨닫기 시작했다. 비록 테크닉이 없어도 설교엔 꼭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김진영 기자

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죠. 그만큼 설교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읽는데 한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종교인들의 말은 너무 단문이다'라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펼치는데 이에 대한 종교인들의 말은, 그저 '안 된다' 혹은 '옳다'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이런 면에선 문제가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교인들에게 단순히 '이것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

남께선 이런 것도 원하지 않을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자면 앞서 말했듯, 설교자부터 자신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한 번 절 돌아보게 되네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측면에서 설교의 뼈대를 세웠고, 하나님을 그저 조수처럼, 그분의 말씀을 목회의 조미료처럼 그렇게 쓸 때가 많지 않았나... 하나님께 죄송스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시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디다. 목회자로 지난 25년

간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너무 고갈된 것 같아 얼마 전 수양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죠.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잠잠할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는 동안 참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에만 빠져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인본적이 됐구나... 그래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기도회에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를 돌이키신 것 같아요."

-설교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설교를 준비하다, 혹은 내 성경

"일단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이 책 저 책 참 많이도 뒤적거렸는데, 지금은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감성 터치는 인간적 방법...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감없이 전해야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 하면 은혜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려 하실까'를 더 고민하게 돼요. 이상하게 늘 읽어왔던 것인데도 요즘 성경이 참 새롭게 보입니다. 설교 때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 더 많아졌죠. 강단에 올라서면, 이제야 좀 철이 들었다랄까, '하나님이 설교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하고 자연스레 기도가 나와요. 교인들로부터도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보다, '말씀 듣고 너무 찼어져 회개했다, 오늘 이런 걸 깨달았다'는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했지만 전 천부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잘 터치하는 사람이예요. 잘 울리고 잘 웃길 수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구요. 그런데 그런 감성 터치로 감동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다음에 더 큰 감동을 줘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감동을 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감성이 아닌 인간의 본질을 터치하기에 교인들이 더욱 진중해지고 헌신적으로 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단 위에서의 선포와 설교자의 실제 삶, 이 간극에 괴로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날마다 괴롭죠. 설교자라면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 역시 평신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죄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전 설교 때 명령하는 말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자' 이런 투의 말을 쓰려고 하죠. 늘 '저'라는 말을 빼놓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혹은 내 성경

해석이 틀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은혜 받은 것들을 메모하는데, 그 이후 반드시 하는 작업이 바로 주석을 확인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메모한 내용이 맞는지 정확한 주석과 비교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에 주관적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설교학적으로 바른 해석인지 관련 주석들을 찾아봐야 하고 또 같은 본문을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게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싱가포르 집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때 하나님께서 문득 '젊은 내 백성을 위해 네가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믿고 말해줬죠. 저마다 말씀을 듣더니 은혜를 받으며 크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후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걸 교리와 원칙, 질서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끝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길 원하는 후배 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네요. 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실제 설교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게 좋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해보는 것. 좋은 설교에 이 이상 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설교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교인들을 가슴 저리게 사랑해야 하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김진영 기자)

Advertisement for L.A. AUTO 정비 (L.A. AUTO Maintenance) featuring a car interior image, a list of services (Smog Check,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is, 전기계통, 30/60/90K Service, A/C Service), contact information (24hr 213.247.6657), and location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Includes logos for ASE, GM Daewoo, and State of California Licensed Smog Check.



민중기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으로 유명한 대전덕 신부님은 겸소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은 늘 가슴에 베 조각을 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오류와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한

국이 받은 축복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토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고 농민이 국가와 일체감을 가

지는 그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너무도 현저한 ‘아이러니’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내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

의 제사장을 버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왕을 향하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3년 6개월의 불경기는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새롭게 되어질 때 물러갑니다.

개혁과 축복의 새해

지게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구습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중대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알은 소위 풍요의 신인데, 바알신과 그의 부인인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나

다. 하루 종일 몸을 상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조롱하면서,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하면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숙청하는 급속한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복된 장대비는 이때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우상과 우상

의 제사장을 버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왕을 향하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3년 6개월의 불경기는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새롭게 되어질 때 물러갑니다.

새해는 시간이 흘러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새해는 우리의 죄와 구습을 척결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개혁 없는 복은 저주가 되기 십상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도래합니다.

2011년에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자만의 복된 장마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박용덕 목사

OC교회 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성실한 자들에게 큰 은혜 임하는 2011년

2011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포사회는 물론 미주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2010년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불안과 혼란이 거듭된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 지진, 테러 등

무엇 하나 목적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설계하신 뜻대로 내 말기고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15절~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사는 법을 창조주이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설계도면(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새해, 새날, 새 아침을 맞아,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는 변화를 위해 새 천년의 둘째 마디인 2011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어 행복해지고, 꿈 너머 꿈을 잡은 자로 창조주의 목적대로 가치를 평가를 받는 위대한 순례자로 일어나 함께 나아가십시오!

제적 고통이 더욱 큰 한 해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더욱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함께 신앙으로 무장된 한인 사회와 교회는 나름대로 잘 극복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보아왔듯이 시대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버티는 버팀목 역할을 해 왔듯이 참 어려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미주 한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직도 시련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미주 한인 사회와 교회 및 성도님들을 2011년도도 잘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특히 성실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사회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2011년 새해를 맞아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창12:3) 참된 복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벧전 2:8)의 권세를 회복하여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2세 청년학생들이 미국과 통일한국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준비되어져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동환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미주대표, KCCC USA 간사훈련원장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201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김원락 목사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밸리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2011년을 시작하는 가정과 생업과 교회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새해의 아침 해 으뜸같이 힘 있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천년의 시작의 해에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10년을 훌쩍 보내며 살아온 우리 사회는 어디에도 희망의 모습이 없습니다. 아직도 국가나 개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직으로 인한 가정파괴와 상실의 아픔을 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이때마다 힘들어 했지만 번번이 이러한 역경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음을 고백하며 승리가 되어왔습니다. 새 천년의 시작으로부터 10년



이 저물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어 내며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가슴을 쓸어 내리지만 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세계도 벨리에서 이민목회의 비전을 꿈꾸어 왔지만 마음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 일

‘2011년 어떻게 하오리이까?’

것입니다. 좌약된 세상이니 말입니다. 내가 상처 받으면 아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대할 때 여과 없이 상처를 주고 떠나니 정말 어리석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지만 평생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웃을 살피지 못하여 함께 힘들어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출발할 때 올해는 잘 살아 보자지 자신을 위한 다짐을 해 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일에는 인색하다보니 남을 힘들게 하며 반목하게 되어 피차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새천

년의 10년을 보내며 살지 않았는지요? 여기서 한 매듭을 묶고 한해를 보내며 새해의 문턱에서 후회하며 힘들어 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으니 역사 앞에 던져놓고, 새 천년의 둘째 마디인 2011년 새해 새아침에 하나님 뜻에 맞춘 자신의 꿈을 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꿈을

꾸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에 꿈을 꾸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본기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넓은 길보다 좁은 길,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 땀 없고 눈물 없는 승리를 꿈꾸어 왔는지, 아글 골짜기 빈들 을 걸으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걸어온 길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꿈 너머 꿈을 꾸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설계자 앞에 그 목적대로 잘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극찬을 받는 최

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생(죄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토기장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땅 사물의 무엇 하나 목적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설계하신 뜻대로 내 말기고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15절~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사는 법을 창조주이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설계도면(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새해, 새날, 새 아침을 맞아,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는 변화를 위해 새 천년의 둘째 마디인 2011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어 행복해지고, 꿈 너머 꿈을 잡은 자로 창조주의 목적대로 가치를 평가를 받는 위대한 순례자로 일어나 함께 나아가십시오!

여드름 고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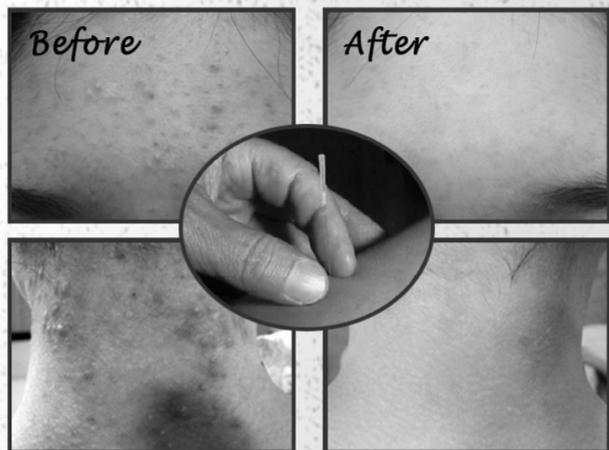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김광수 목사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성문교회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 우리는 제3의 물결로 일컬어

지는 'Thinking, Knowing, Experiencing, Serving'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각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기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뜻은, 경제가 시속 100마일로 발전하면 정치도 같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

는 자들이 뒤쳐져 있는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풀고 헌신하게 된다면, 진실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진정한

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동안 성장의 시대를 꿈꾸어 왔다면,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간 교회가 섬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분을 '주(主)'로 따르는 그 분의 몸

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한 해는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민사회와 어려운 구조 속에서 힘들어 하는 이웃들을 더욱 섬기며, 함께 일어나는 '섬김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땅에서 경제의 한파를 맞고 있는 한인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따뜻한 희망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함께 일어나는 ‘섬김의해’가 되길...”

으로 하여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를 읽어보면, 제4의 물결 시대인 미래는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Synchronization(동시화)

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때에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 무리나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단연코 도태되고 마는데, 이 때에 많이 벌고 많이 배운 자, 앞서 가

한 'Synchronization'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흐름은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며, 교회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세호 목사

CRC 한인협의회회장, 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

2011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지난 한 해를 보살피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새해에도 수년간 지속된 경제 불황과 자연재해, 테러 및 전쟁,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 사회, 나라와

의 길을 가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바다를 건넜듯이, 땅의 문제를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과 지

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인생의 나침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면 일시적 시련을 겪을 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할 때

세계 문제를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 말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하여 광야

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길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험한 풍랑

있으나 안전한 길을 가고 마침내 만선의 깃발을 달고 귀향하는 축복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의 첫 발걸음은 내딛고 첫 출항을 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인연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다윗 목사

남가주남침례교회협의회장, 샌디에고 제일침례교회

세월을 아끼며 살자

신묘년 2011년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힘차게 밝았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뜨는 태양처럼 우리의 소망과 기대 속에 2011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기독일보 애독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나의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도록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가득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새해에 새롭게 각오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길 축원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신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가 프랭클린이 말을 했습니다만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銅)으로, 분침은 은(銀)으로, 초침은 금(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나?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순간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때가 악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월을 더욱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길 목사

C&MA한인총회 감독

새해에는 하나 되는 은혜가!

새해에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

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는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 되고, 교회들이 하나 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C&MA 한인교회들은 특별한 교단이나 교파의 구분 없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뜻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과 국가, 인종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11년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 되는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성록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주님사랑 나누고 베푸는 새해 되길

먼저, 밝아오는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동역자 여러분들과 기독일보 애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줄기차게 달려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외 없이 아쉬움 곱으로 안은 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 우리네 삶 속에 빼곡히 채워주신 그 소중한 날들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해의 아쉬움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새해를 향한 우리의 진솔한 소원 주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내어, 거창하지는 못해도 소박하지만 제대로 된 꿈 하나라도 보람으로 다듬고 일구려는 열정을 안고 새해를 긍정적으로 열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아울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교포용

www.ukopia.com

최저가 한국 호텔예약

"주민등록증 없이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릴 없이 심는 임플란트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법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특별할인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보철임양: PPO, HMOA
치주치료 • TMJ (악관절장애, 소음현상)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철소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철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정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 (20만 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820-3504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월 1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아·이·토·크·비·비

iTalkBB의 새해 선물!

내 친구들 다 모여라~ 아이패드도 보인다!

친구 7명 추천하면 iPad 16Gb Wi-Fi + 1년 무료
친구 6명 추천하면 iPod 4th Generation 32Gb + 1년 무료
친구 5명 추천하면 Exxon Mobil Gas Certificate(주유상품권) \$100 + 1년 무료
친구 4명 추천하면 1년 무료 | 친구 3명 추천하면 6개월 무료
친구 2명 추천하면 3개월 무료 | 친구 1명 추천하면 1개월 무료

글로벌 플랜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24.99 /월 TAX 포함

글로벌 플랜 플러스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34.99 /월 TAX 포함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아이토크 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친구 추천하세요!

1.800.872.2902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http://www.Korea.iTalkBB.com **iTalkBB**

* 친구 추천 프로모션은 피추천인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1년 계약 신규 가입에 한하며, 무제한 플랜은 제외됩니다. 친구 추천을 1명 하신 경우는 추천인과 피추천인 중 낮은 플랜으로 1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2011년도 **신년특별** 세일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어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0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8,610 **SOLD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SOLD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SOLD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8,1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2,888**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OLD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OLD \$16,999**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OLD \$17,995**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 **SOLD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OLD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OLD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OLD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OLD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터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정



앤디 김



지니 안



존 김



한국어 상담 제니 김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